



5

한국 육상경기의 숨겨진 영웅들



1

의지의 사나이 권태하(1906~1971)

1932년 LA 올림픽대회 주경기장. 마라톤에서 아르헨티나의 자발라가 1위로 피니시라인을 통과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27세의 권태하가 주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정상이 아니었다. 고개는 왼쪽으로 비스듬히 떨구고 두 팔은 늘어뜨린 채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⁰⁰¹

권태하는 눈앞에 흰 줄이 보이자 그대로 쓰러졌다. 그러나 그것은 피니시라인이 아니었다. 피니시라인은 10m 앞에 있었다. 4×100m 릴레이 레이스의 배턴 이어받기 구간 시작선을 피니시라인으로 착각한 것이었다.

‘바로 저 앞 피니시라인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 쓰러져 있던 권태하가 갑자기 피니시라인을 향해 두 무릎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한 무릎 한 무릎씩 기어서 앞으로 나아갔다.

‘아, 조금만 가면 되는데’ 일어나 걸어 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도저히 발이

⁰⁰¹ 내용 구성은 김광희, 2001, p247~248: 《양정 100년사》: 국민일보 2006년 12월 8일자; 서울신문 1996년 8월 5일자 등 참조.

떨어지지 않았다. 10m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권태하가 간신히 피니시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관중석에선 함성이 터져 나왔다. 최종 순위는 9위였지만 그날 최고 승리자는 권태하였다. 메달은 목에 없었지만 그는 끈기와 감동의 금메달을 땀다.

일본에서 중·장거리 선수로 활약

권태하는 뜻하는 바를 끝내 관철하고 마는 강한 집념의 소유자였다. 충북 충주 명망가에서 태어난 그는 일본 리쓰메이칸을 졸업하고 메이지 대학에 진학해 법학을 공부했다. 중학교에 다닐 때는 럭비와 육상경기(중거리) 선수로 활약했고 대학에서는 중·장거리 선수로 이름을 떨쳤다. 대학 대항전 때면 800m, 1500m, 5000m에 참가해 상위에 입상하면서 그가 남다른 달리기 재능을 가진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권태하는 1927년 7월 도쿄 유학생 고국방문대회 800m에서 2분 8초 4로 1위, 1500m에서 4분 26초 2로 1위 했다. 1931년 메이지 대학 졸업반인 3학년 때 전일본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 1만m에 참가해 우승하자, 이듬해에 열리는 LA 올림픽 마라톤에 참가하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권태하는 42.195km의 코스를 주파할 수 있는 지구력을 키우기 위해 그해 가을부터 하코네 인근 산간지대의 한 여관에 집을 치고 맹훈련을 거듭했다. 하코네는 도쿄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곳으로 오르내리는 길이 가팔라 지구력 훈련에 안성맞춤이었다. 가을에서 겨울을 넘긴 1932년 3월, 대학 졸업을 며칠 앞두고 쟁 기록은 2시간 28분대. 훌륭한 기록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권태하는 서울로 돌아왔다. 도쿄에서 열리는 LA 올림픽대회 파견 후보 최종 선발전에 참가하려면 먼저 조선 예선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경기는 그해 5월 8일 경성운동장을 스타트해 경인가도를 달리다 오류동을 반환점으로 하는 왕복 코스에서 벌어졌다.



1932년 한국인 최초로 제10회 로스앤젤레스 올림픽대회에 참가해 스타디움에서 훈련 중인 김은배, 권태하, 일본인 쓰다(왼쪽부터).

오르막길이 많아 선수들에게는 괴로운 코스였다. 그러나 권태하는 하코네 산 중 훈련 덕분에 무난히 난코스를 소화해 냈다. 기록은 2시간 35분 12초. 권태하는 전년인 1931년 10월, 조선신궁대회 마라톤에서 같은 코스를 2시간 26분 12초의 비공인 세계기록으로 우승한 김은배와 함께 조선 대표로 뽑혀 일본 최종 예선에 참가하게 됐다.

대회가 열린 날은 1932년 5월 25일. 조선 예선을 끝낸 지 20일이 채 안 돼 또 달려야 했다. 체력 소모가 엄청난 마라톤 경기 특성상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그래도 정해진 날짜를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최종 예선을 닦새 앞두고 권태하는 심한 감기에 걸리고 말았다.

며칠을 앓던 그는 대회 당일인 5월 25일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무거운 몸을 이끌며 숙소를 나섰다. 참가 선수는 약 60명. 이들 가운데에는 당시의 세계 기록을 경신한 다카하시도 있었다. 국립경기장을 스타트해 도쿄 이웃 항구도시인 요코하마에 이르는 국도를 거쳐 되돌아오는 코스다.



1932년 도쿄에서 열린 LA 올림픽대회 파견 조선 예선 마라톤에서 1위를 한 권태하(왼쪽)와 2위 김은배. 동아일보 1932년 5월 27일자 게재 사진.

정오에 스타트해 경기장을 벗어났을 때 다리에 힘을 받지 못한 권태하는 대열의 맨 끝에 있었다. 온몸에 진땀이 흘렀지만 이내 그의 진면목이 나타났다. 죽을 각오로 앞서가는 선수들을 따라잡았다. 몇 명이나 제쳤을까. 권태하는 선수들을 제치고 지쳐 보이는 김은배를 앞섰다.

그러자 쓰다가 보였다. 게이오 대학 출신으로 4년 전 암스테르담 올림픽대회에서 6위에 입선한 강자였다. 32km 지점에서 권태하는 쓰다를 제치고 2위에 올라섰다. 피니시라인을 4km 남긴 고갯길에서 권태하는 전년 세계신기록을 세운 최선두 주자 다카하시를 잡았다.

그런 다음 권태하는 나머지 3km를 독주해 2시간 36분 49초로 결승 테이프를 끊었다. 5월 초 조선 예선을 달렸고 2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 예선을 다시 제패한 것은 초인적인 의지와 체력 없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독감을 앓던 끝에 일귀넨 집념의 승리였다.

다리 경련, 통한의 LA 올림픽대회

1932년 6월 23일 권태하를 포함한 일본 선수단은 여객선을 타고 요코하마를 출항해 2주에 걸친 항해 끝에 7월 6일 LA에 도착했다. 제10회 LA 올림픽 마라톤은 콘크리트 포장의 편도 코스에서 벌어졌다. 바닥이 딱딱해 달리기 힘들었는데, 코치 겸 선수인 쓰다는 권태하, 김은배에게 자신만 따르라며 도무지 선수 개개인에 맞는 훈련을 시키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권태하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달리기로 마음먹고 한 달을 연습했다. 8월 7일 결전의 날이 왔다. 상위 입상의 꿈을 안고 참가한 권태하의 컨디션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 오랜 항해 탓이었는지 평소 60kg이던 체중이 경기 당일 55kg까지 빠져 있었다.

문제가 발생한 건 18km 지점. 선두 그룹에서 달리던 권태하의 다리에 경련이 나기 시작했다. 길에 선 채로 다리를 비비고 주무른 뒤 다시 뛰었다. 35km를 지나면서 탈진 증상까지 겹쳤다. 그래도 정신력으로 버티며 꺾꽂 앞으로 나아갔다.

지난 5월 도쿄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죽을힘을 다해 달렸건만 35km 지점 이후를 어떻게 달렸는지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1950년 미국 보스턴마라톤 우승자인 함기용은 “나중에 권 선배에게 물어보니 그때 정신이 몽롱해지고 앞조차 거의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 했다. 권태하는 레이스를 그만둘 수도 있었지만 ‘조선의 마라토너’로서 다져진 강인한 끈기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LA 올림픽대회가 끝난 뒤 쓰다 코치 겸 선수는 일본 마라톤 팀의 부진 원인이 자신의 지시를 어긴 조선인(권태하, 김은배)에게 있다며 책임을 전가했다. 이에 분개한 권태하는 대회가 끝난 후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남아 남가주 대학에 입학했다.

유학 중에도 권태하는 끊임없이 조선의 후배들을 걱정했다. 1936년 5월 베를린 올림픽대회 최종 예선전이 치러질 무렵 매일신보에 ‘베를린 올림픽에 일본 마라톤이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3회에 걸쳐 쓰면서 “쓰다는 코치 자격

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당시 아사히신문 체육부장이었던 오다 미키 오(織田幹雄)에게 편지를 써서 쓰다를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코치로 파견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오다는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대회 세단뛰기 금메달리스트로 일본 체육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

실제로 일본 마라톤 선수단이 베를린으로 떠나기 2주일 전 코치가 쓰다에서 사토로 바뀌었다. 권태하는 최종 예선을 거쳐 베를린 올림픽대회에 참가가 결정된 남승룡과 손기정을 염려하여 온갖 수단으로 쓰다 코치의 파견을 막은 것이었다. 또 권태하는 당시 양정고보 2학년이던 손기정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편지를 보냈다. 줄거리는 이랬다.

나는 운이 따르지 않아 9위에 그쳤다.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다. 그러나 올림픽 마라톤을 막상 달려 보았더니 환경만 좋았다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4년간 열심히 훈련해서 일본 예선을 통과해 본무대를 밟는다면 영광은 그대에게 빛날 것이다.

이 편지에 자극을 받아 노력한 결과, 손기정은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을 제패했다. 권태하는 이렇듯 한국 마라톤의 대부였다는 점에서 그 존재를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후 그는 자비를 들여 베를린 현지에 찾아가 손기정과 남승룡을 뒷바라지했다. 권태하는 손기정이 레이스 도중 LA 올림픽대회 금메달리스트인 선두 자발라를 제칠 때 손기정의 몸에 물을 뿌려 주며 외쳤다. “기정아. 자발라가 지쳤다. 자발라만 잡으면 우승이다.”

함기용은 “해방 뒤에도 권 선배는 마라톤 후원단체를 만들었고 독지가에게서 걷은 돈을 손기정 감독에게 정기적으로 쥐어 줬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권태하의 도움으로 손기정의 제자인 서윤복(1947년)과 함기용(1950년) 역시 보스턴마라톤을 연속 제패했다.

영원한 2인자 남승룡 (1912~2001)

권태하는 극한적인 상황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감동적인 완주를 이뤄 냈다. 그리고 선수 시절 보여 준 끈기를 간직하면서 후배 마라토너 양성이라는 새로운 가치에 자신의 몸을 던진 진정한 마라토너였다. 권태하는 1961년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역임했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 경기의 스타트라인에는 28개국에서 참가한 51명이 결전을 기다렸다. 선수 가운데에는 앞선 LA 올림픽대회 마라톤 우승자인 아르헨티나인 자발라도 보였다. 스타트라인에서 29km 지점. 드디어 손기정이 자발라를 제치고 선두로 나섰다.

곧이어 남승룡도 자발라를 따돌리고 앞서 달리던 영국의 하퍼를 따라붙었다. 그는 “천천히 뛰라.”는 하퍼의 힘 빠진 목소리를 들으며 뒤따랐다. 손기정의 페이스메이커 노릇을 한 것이다. 남승룡은 2시간 29분 19초 2로 세계신기록을 작성한 손기정 선수에 이어 2시간 31분 42초의 기록으로 3위를 했다.⁰⁰³

올림픽대회 마라톤 사상 처음으로 한 나라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차지하는 쾌거였다. 일장기를 달고 시상대에 오르는 통환을 되짚어야 했지만 두 개의 메달은 나라를 뺀 우리 민족 모두에게 자부심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안겨

⁰⁰³ 고두현, 2008, p152~159; 동아일보 2008년 2월 20일자; 서울신문 2001년 2월 21일자; 세계일보 2001년 2월 22일자 등 참조.

졌다. 그럼에도 남승룡은 손기정이 금메달을 목에 건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낸 '잊혀진 영웅' 일 뿐이었다.

암울한 시대 우리 민족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희망을 안겨 준 남승룡은 손기정의 그늘에 가려 긴 세월을 2인자로 살았다. 그런 남승룡은 한국 마라톤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족적을 남겼다. 그는 한국 마라톤 발전에 밀알과도 같은 존재였다.

서운복의 우승을 도운 남승룡

남승룡은 광복 직후인 1947년 보스턴마라톤대회에 코치 겸 선수로 참가했다. 손기정 감독과 스태프를 이룬 이 대회에서 서운복의 페이스메이커 노릇을 해, 자신은 10위에 그쳤지만 서운복이 우승하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서운복은 “당시 남승룡 선생은 ‘함께 달려 줄 테니 대신 기권은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면서 “남 선생은 항상 함께 뛰면서 선수들을 지도했다.”고 회고했다. 1947년부터 1963년까지 16년 동안이나 대한육상경기연맹 이사로 활동하며 한국 육상경기의 초석을 놓은 것도 남다른 면모다.

남승룡은 1912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달리기 신동으로 불렸다. 달리기는 남승룡의 꿈이었다. 보통학교 때 전국대회에서 2위를 한 그는 가정 형편상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하지만 달리기를 하고 싶어 뒤늦게 상경해 협성학교를 다니다 육상경기 명문 양정고보로 전학했다. 양정고보로 전학한 뒤 남승룡은 각종 육상경기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1932년 4월 조선체육협회 주최 경인역전경주대회에 양정고보의 첫 주자로 달려 모교의 우승에 기여했고, 그해 9월 23일 연희전문 주최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에서 1500m 2위, 8마일 레이스(42분 53초)에서 1위를 했다. 양정고보 1년 후배인 손기정은 1500m에서 1위, 8마일 레이스에서 2위를 해 선후배가 라이벌 구도를



손기정과 남승룡이 베를린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1, 3위를 한 지 10년이 되는 1946년 8월 9일 서울 덕수궁에서 당시의 시상식이 재현됐다. 월계관을 쓴 손기정이 시상대에서 있고 백범 김구(오른쪽)가 남승룡(가운데)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형성했다. 10월 8일 평양에서 열린 제2회 관서체육대회에서 남승룡은 5000m(18분 07초)에서 1위를 했고, 1500m에서는 김은배에 이어 2위를 했다. 1930년대 양정고보 육상경기부는 김은배, 남승룡, 손기정 등 걸출한 선수들을 배출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남승룡은 1932년 10월 18일 제8회 조선신궁경기대회 마라톤에서 2시간 48분 35초로 1위를 했고, 이어 10월 22일에 열린 조선체육회와 고려육상경기회 주최 제8회 전조선육경기대회 5000m에서 16분 55초 2로 자신의 기록을 크게 단축하며 1위를 했다.

1933년 양정고보를 졸업한 뒤 남승룡은 이후 전남 소속으로 각종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했다. 1933년 10월 17일 조선신궁경기대회 마라톤에서 손기정이 2시간 29분 34초 4로 1위를 하고 이어 남승룡이 2시간 30분 51초 6으로 2위를 했다. 당시 1,2위 모두 세계최고기록으로 전 조선이 흥분의 도가니였으나 코스의 부정확 문제로 비공인 세계기록이 되고 말았다. 그해 11월 3일 제8회 메이지신궁대회 마라톤에서 김은배, 손기정과 함께 조선 대표로 참가한 남승룡은 2시간 32분 33초로 2위를 했다. 1위는 2시간 31분 10초로 일본최고기록이자 세계최고기록을 세운 구스노키 요시조楠好藏(일본)에게 돌아갔다. 이 대회에서 손기정과 김은배는 부상으로 완주하지 못했다..

일본에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등을 하며 학비를 마련한 남승룡은 1934년 메이지대학 전문부에 진학했다.⁰⁰⁴ 이 무렵 그는 도쿄~하코네 사이에서 벌어진 대학역전경주대회에 참가해 놀라운 스피드로 달려 메이지 대학 우승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같은 해 미-일 대항 경기에서는 5000m 우승을 차지했다.

남승룡은 메이지 대학 재학 중이던 1936년 초 베를린 올림픽대회 파견을 위한 일본 1차 선발전에서 양정고보 1년 후배 손기정을 제치고 우승해 대표로 선발됐다. 1936년 5월 베를린 올림픽대회 파견 마라톤대표 최종 선발전에서도 1위는 그의 몫이었다. 손기정은 2위였다.

남승룡은 베를린에서 당시 대표 선수 3명 가운데 조선인 선수가 2명이나 참가하는 것을 꺼린 일본육상연맹이 독일 현지 테스트를 하는 등 온갖 방해 공작에도 당당하게 실력으로 참가했다. 그의 마라톤은 후반에 강했다.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반환점을 돌 때는 33위였으나 30km 지점에서는 16위로, 34km 지점에서는 6위로 올라서며 동메달리스트가 됐다.

그렇지만 손기정과 그의 인생행로는 이때부터 뒤바뀌기 시작했다. 남승룡이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 핀란드 선수를 뒤따르다 페이스를 너무 늦춰 3위에 머문 반면, 손기정은 올림픽대회 신기록으로 월계관을 차지했다. 손기정은 국민적

남승룡의 찹쌀떡과 영구차 징크스

선비 같은 인상의 남승룡은 찹쌀떡을 특히 좋아했다. 그는 경기 직전에 흔히 '모찌'라는 일본 찹쌀떡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나지 않아 잘 달릴 수 없다는 징크스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남승룡은 찹쌀떡 너댓 개와 경우에 따라서는 쥘 고구마를 먹고 경기에 참가했다. 당시 일부 육상경기 관계자들은 "경기 직전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찹쌀떡을 먹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며 남승룡을 비웃었다고 한다. 그런데 찹쌀떡은 호떡처럼 글리코겐을 공급해 준다고 한다. 뒷날 일본 실업 육상경기팀이 마라톤 선수들에게 경기를 앞두고 찹쌀떡을 권하게 된 것을 보면 남승룡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것 같다.

탄수화물은 먹고 난 뒤 3시간이 지나야 에너지가 될 수 있다. 2시간 남짓에 끝나는 마라톤에서는 경기 직전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남승룡의 경우 몸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탄수화물을 글리코겐으로 바꾸는 특이체질이었는지 모른다. 남승룡이 특히 막판에 강했던 것은 찹쌀떡이 글리코겐으로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을까.

전남대 체육과 교수를 지낸 그였지만, 경기를 앞두고 영구차를 봐야만 운이 좋아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징크스도 갖고 있었다. 메이지 대학에 재학할 당시, 후원자였던 기타바타케가 경기 당일 아침 일찍부터 남승룡을 차에 태우고 도쿄 시내를 돌며 영구차를 찾아 헤맨 이야기는 유명하다.⁰⁰⁵

⁰⁰⁴ 당시 서울 하숙비는 한 달에 13원이었다. 10원이면 쌀 세 가마를 사고도 돈이 좀 남는 시절이었으니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매달 13원씩 보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손기정과 남승룡은 양정 육상경기부 특기생이었지만,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특혜란 수업료 면제뿐이었다. 하숙비와 교과서·문방구 값은 모두 본인 부담이었다. - '스포츠인물 비사, 손기정과 남승룡', 월간조선 2004년 11월호.

⁰⁰⁵ 스포츠인물 비사, 월간조선 2004년 11월호

만능 투척 왕 유약한(1902~1948)



1959년 양정고등학교 월계수나무 앞에서 손기정이 직접 찍어준 남승룡의 모습. 손기정이 올림픽 우승 기념으로 받아 식수한 이 나무는 훗날 월계수가 아닌 레드오크로 밝혀졌다.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남승룡은 금메달리스트의 그늘에 가려져야 했다.

그럼에도 대회 때마다 각국 기자들에게 자신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라고 강조할 만큼 신념이 강한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남승룡은 동갑내기이며 양정보 1년 후배인 손기정을 '동지'로 부르며 우정을 쌓았다. 차분한 성격의 그는 육상경기연맹에 관계한 것을 빼고는 만년에 조용한 삶을 보냈다.

특히 육상경기연맹에서 물러난 뒤부터는 줄곧 은둔생활을 했다. 남승룡이 89세를 일기로 2001년 2월 20일 세상을 떠난 다음 날 동아일보 사회면에 실린 그의 부고기사 제목은 '잊혀진 영웅 가다' 였다. 남승룡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이었다.

조선 투척의 제왕. 유약한을 일컫는 말이다. 기록만 언뜻 봐도 그가 왜 던지기의 제왕 자리에 올랐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유약한이 작성한 원반던지기 최고기록은 41m 72.⁰⁰⁶

1934년 4월, 제10회 극동올림픽대회 조선 예선 대회로 치러진 경성선수권대회에서 세운 41m 72는 13년 뒤인 1947년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 안영한이 44m 43을 던져 깨졌다. 포환던지기의 경우 유약한은 1927, 1929, 1930, 1932, 1933년에 걸쳐 연도별로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포환 및 원반던지기뿐만 아니라 창던지기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1932년부터 1934년까지 3년간 전 조선의 패자에 올랐다.

특히 1933년 8월 조선-만주 대항전 예선에서 세운 58m 80은 이후 31년 동

006 <월간 시민체육> 9월호: 대한체육회 50년, 대한체육회, 1970년: 네이트(www.nate.com) 백과사전 등 참조.

안이나 깨지지 않았다. 이 기록은 1964년 9월 종합선수권대회 창던지기에서 육군 소속 박수권이 66m 90을 던질 때까지 유지되었다.⁰⁰⁷ 화려한 기록으로 10회 극동올림픽대회에 참가한 유약한은 초창기 우리 육상경기계가 배출한 투척 왕 중의 왕이었다.

개성 송도고보 시절 육상경기 입문

유약한은 개성 송도고보를 졸업하고 연희전문과 조선총독부 철도국을 거치던 1920년대 중반에서 193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간 포환, 원반, 창을 던지며 조선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떨쳤다.

평양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그는, 1921년 개성 송도고보에 입학하면서부터 스포츠를 즐겼다. 당시 학생들이 보통 그랬던 것처럼 공부하며 여러 운동을 섭렵했다. 그러면서 유약한의 몸은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송도고보 4학년 때 그의 키는 180cm. 당시 조선인으로서의 엄청나게 큰 체격이었다. 유약한이 두각을 나타낸 것은 우리나라 육상경기 초기 발전에 적잖은 기여를 한 연희전문 주최 전조선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부터다.

1923년 연희전문 교정에서 거행된 첫 대회에서는 김장률 등의 활약으로 송도고보가 전국 8개 학교를 누르고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김장률은 송도고보 시절 유약한의 동기로서 초기 단거리의 왕으로 활약한 인물이었다. 연희전문의 첫 대회에서는 도약과 투척 경기가 없었다. 마일, 야드 등으로 거리가 표시된 달리기 종목만 열렸다.

⁰⁰⁷ 고두현, 1998, p148.

유약한이 이 대회에 처음 참가한 것은 송도고보 4학년 때인 1924년 제2회 대회다. 그는 원반던지기에서 28m 33을 기록해 2위를 했다. 포환던지기에도 나섰지만 9m 30에 그쳐 4위로 예선 탈락했다. 당시는 원반던지기는 원판투, 포환던지기는 투탄으로 표현했다.

졸업 학년인 5학년이 되자 유약한은 제3회 중등학교육상경기대회 던지기 부문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원반던지기에선 30m 09를 던져 1위, 포환던지기에선 9m 96으로 2위를 했다. 창던지기에서는 42m 22를 던져 3위에 입상했다.

이 대회는 연희전문의 재단 간부를 비롯해 교수들 대부분이 경기 임원을 맡아 치러졌다. 이들 눈에는 괴력을 뽐내며 메달을 획득하는 거구가 믿음직스럽게 보였을 터다. 그래서인지 1926년 송도고보를 졸업한 유약한은 연희전문 문과에 지원해 어렵지 않게 합격했다.

육상경기·축구·농구까지 만능 스포츠맨

던지기에서 독보적 위치를 쌓아 가던 유약한은 여러 운동에 능한 만능 스포츠맨이었다. 그 시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랬듯이 육상경기, 축구, 때로는 농구 경기에서 활약하며 대외 경기에도 참가했다. 1926년 제7회 전조선축구선수권대회가 열리자 연희전문의 측면 미드필더로 활약해 결승경기에서 송실전문을 2대 0으로 누르고 우승하는 데 이바지했다.

당시 중앙 미드필더는 이영민으로, 그는 축구팀 주역이자 야구 강타자였고, 육상경기 달리기 종목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1928년 12월 연희전문 축구단은 중국 상하이 원정에 나섰다. 여기서 유약한은 선수 15명에 끼여 미드필더와 골키퍼로 활약했다.

그런가 하면 농구선수로도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 당시 연희전문은 평양 송실전문과 정구, 축구, 농구 등 경기에서 정기 대항전을 해마다 펼쳤다. 유약한은

장거리의 왕자 유장춘(1910~1980)

1928년에 열린 두 학교 대항전에서 모교 농구팀 가드로 참가해 팀 승리를 견인했다.

하지만 그가 전력을 기울인 것은 어디까지나 육상경기의 던지기였다. 1925년 경성운동장이 세워지고 이듬해부터 조선의 육상경기가 본격화됐으니 원반던지기에서 유약한의 전성기는 1926년부터 1937년까지 12년간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사이 그는 1928년 한 해를 빼고 해마다 조선신기록을 작성했다.

유약한이 연희전문 재학 시절인 1930년 11월 15일 사립전문학교육상경기대회가 경성운동장에서 열렸다. 그는 이 대회에서 연희전문이 종합우승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등 던지기 4종목은 물론 세단뛰기에서도 우승했다.

더불어 200m 허들과 멀리뛰기에서 2위, 높이뛰기 3위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다른 육상경기 종목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이에 앞서 유약한은 1929년 6월 제6회 전조선육상경기대회에서 포환던지기과 원반던지기 등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여세를 몰아 같은 해 10월 제5회 조선신궁대회와 이듬해 10월에 개최된 제6회 메이지신궁대회, 제6회 조선신궁경기대회에서도 각각 원반던지기 1위에 올랐다.

이후 1931년부터 유약한은 철도국팀에 소속돼 1931년 10월부터 1935년 10월까지 각종 경기에서 원반던지기 1위 4회, 창던지기 1위 2회, 5종경기 1위 1회, 포환던지기 1위 1회 등으로 대회를 석권하다시피 했다.

이후 1936년 경성구락부에 소속된 그는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10월에 열린 제12회, 13회 조선신궁대회에서 원반던지기 1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투척의 제왕 유약한은 그 종목 이름도 생소하던 시절 초창기 우리나라의 육상경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1933년 어느 가을 새벽녘 총독부 운동장. 지금의 경북궁 동쪽 경내, 동십자각 맞은편 400m 트랙을 한 20대 사나이가 달리고 있었다. 세상은 아직 깨어나지 않고 한기가 온몸을 감싼 그 새벽에 그는 쉽 없이 운동장을 돌고 또 돌았다.

그 사나이는 바로 이듬해 아시아 규모 종합경기대회에 나가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건 유장춘이다.⁰⁰⁸ 함경남도 출신인 그가 경성 진출 2년째인 1934년 봄, 육상경기 시즌이 열리자 그의 노력은 눈부신 결과로 나타났다. 중거리 1500m부터 장거리 5000m와 1만m에 걸쳐 따를 자 없는 독주를 계속한 것이다.

1934년 제10회 극동올림픽대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⁰⁰⁹ 그 대회에 참가하려면 조선 예선을 거쳐야 했다. 유장춘은 4월 3일 제3회 경성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극동선수권대회 조선 예선 1500m와 1만m에서 우승해 조선 대표

⁰⁰⁸ 장원재, *올림픽의 숨은 이야기*, 살림출판, 2004년, '아! 손기정' 중에서, (월간 시민체육), 조동표, 7·8월호; 네이트 백과사전 등 참조.

⁰⁰⁹ 우리나라는 지금의 아시아경기대회 전신 격인 극동선수권대회(또는 극동올림픽대회) 초기 인연이 없었다. 일본의 식민지였던 데다 우리 스포츠의 일본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리 선수들이 일본에서 열린 각종 경기 예선에 활발히 진출해 1934년 제10회 극동선수권대회에 4명의 선수가 참가할 수 있었다. 이 중 육상 선수로는 유장춘, 유약한 등이 경기에 나섰다. -두산백과 참조.

로 뽑혔다. 특히 1만m에서 세운 32분 25초 2는 조선신기록이었다.

유장춘은 일본 대표로 뽑힐 것을 확신하며 현해탄을 건너 일본에 상륙했다. 일본 예선은 4월 14일 메이지신궁외원 경기장에서 열렸다. 유장춘의 나이 24세, 장거리 주자로서 절정에 다다른 무렵이었다.

그는 쟁쟁한 일본인 선수들을 물리치고 열하루 전 경성 예선에서 세운 조선신기록보다 1분 05초나 빠른 31분 20초 2의 일본신기록으로 1만m를 제패하며 당당히 극동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따냈다. 이로부터 24년 뒤인 1958년 5월 도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한승철이 30분 55초 6을 기록해 비로소 한국 육상 1만m는 30분대에 진입했다. 극동선수권대회 개막에 앞서 유장춘은 4월 28일 선수단과 함께 고베를 출항하는 상선을 타고 마닐라로 향하는 장도에 올랐다.

한국 최초의 국제대회 장거리 종목 우승자

1934년 주변 상황은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이 대회가 마지막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갖은 우려 속에서도 제10회 마닐라 극동올림픽대회는 육상경기, 수영, 축구, 농구, 배구, 야구, 테니스, 복싱 등 8개 종목에 걸쳐 진행됐다. 우리 선수들은 육상경기와 복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특히 유장춘은 1만m를 32분 45초 5로 달려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다. 1500m에서는 일본의 다나카에 1.5초 뒤진 4분 5초로 아쉽게 2위를 했다.

유장춘은 1910년 함경남도 이원군 철광산 인근 마을에서 태어났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철광 관련 직업에 종사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란 유장춘은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규율이 엄한 서당교육을 받아 한학에 능했다. 이 시절 유장춘은 체조 시간과 교내 운동회 때면 영웅이었다. 달렸다 하면 따를 자가 없어 1위는 늘 그의 몫이었다.

이후 유장춘은 항구도시 원산으로 나와 간판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달리기애 매진했다. 그는 선천적으로 가슴이 두툼하게 발달해 풍부한 폐활량을 자랑하는 체질이었다. 짬이 날 때마다 유장춘은 이웃에 위치한 원산상업학교 교정에 자주 들러 달리를 했다.

그러다 그의 뛰어난 중·장거리 실력을 간파한 원산상업 육상경기부원들은 연습 상대로 유장춘을 받아들였다. 이로부터 그의 달리기 실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1933년 가을 유장춘은 경성 무대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당시 제9회 조선신궁대회 1만m에 함경남도 대표로 참가한 그는 변용환, 양임득을 차례로 제치고 우승해 일대 파란을 일으켰다. 특히 변용환은 당시 조선 장거리의 왕자로 군림하면서 조선신궁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의 단골 우승자였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그를 특별 채용해 운동에만 주력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줬다. 그런 변용환을 무명의 유장춘이 막판에 누르고 우승한 것이다. 기록은 33분 10초. 유장춘이 조선신궁대회 우승으로 일약 스타가 되자 총독부 외국인 체신국은 기초학력자인 그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 광화문 청사본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당시는 육상경기 실업대항전이 경성의 인기 있는 이벤트였다.

여러 실업팀 가운데서도 총독부, 체신국, 철도국팀이 강했다. 그러다 체신국은 유장춘의 가세로 중·장거리 종목에서 늘 우위를 차지했다. 그 무렵 경성에는 트랙을 갖춘 운동장이 3곳 있었다. 경성운동장은 500m 트랙, 용산 철도국은 300m 트랙, 총독부는 400m 트랙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총독부의 경우 400m 정규 트랙을 가진 데다 관리 상태가 좋아 유장춘은 그곳을 주 연습장으로 삼았다. 손기정에 따르면 체신국 시절 유장춘은 새벽 5시면 총독부 운동장에 나타나

010 손기정은 유장춘보다 한 해 늦은 1911년생으로 고향 신의주를 떠나 서울에는 유장춘보다 한 해 이른 1932년에 올라왔다. 그로부터 두 사람은 장거리에서, 때로는 마라톤에서 이겼다 졌다 하는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다. 이런 까닭에 당시 유장춘을 잘 알고 있었던 손기정은 그를 지도한 연습벌레라고 했다.

전설의 점퍼 김원권(1915~)

달리기 연습에 여념이 없었다고 한다.⁰¹⁰ 이런 맹훈련의 결과로 극동올림픽대회를 제패한 유장춘은 2년 뒤 다가올 베를린 올림픽대회를 기약하며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유장춘은 경기 영역을 넓혀 마라톤에 도전해 손기정을 이기기도 했다. 그렇지만 손기정의 스피드를 따르지 못해 2인자에 머물렀다. 마라톤에서 손기정을 이기지 못한다면 5000m와 1만m 등 장거리에서 1인자가 돼야 올림픽대회 참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들 종목에는 단신의 일본 대학생 무라코소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버티고 있었다. 1934년 두 선수의 성적을 보면 유장춘이 더 좋았다. 5000m에서 무라코소가 일본 3위, 유장춘이 4위였고, 1만m의 경우 유장춘이 1위, 무라코소는 4위였다. 이러던 두 선수의 위치는 해를 넘겨 베를린 올림픽대회를 한 해 앞둔 1935년이 되자 바뀌게 된다. 5000m와 1만m에서 모두 무라코소가 1위를 차지했다. 유장춘은 5000m에 4위, 1만m에서 2위를 했다.

일본육상경기연맹은 이에 베를린 올림픽대회 준비 대표로 두 선수를 함께 뽑아 1935, 1936년 초에 걸쳐 겨울 합숙훈련을 시켰다. 올림픽대회를 위한 일본 최종 선발 예선은 1936년 4월 13일에 열렸다. 무라코소는 여전히 강했다. 그는 5000m를 14분 46초 2의 일본신기록으로 우승했다. 유장춘은 3위에 그쳤다. 1만m에서는 2위를 했다. 우승은 역시 무라코소 차지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은 베를린 올림픽대회 장거리에 2명의 선수를 파견키로 했다. 그런데 일본육상경기연맹은 제1 후보를 무라코소로 정하고 그에게 제2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무라코소는 경쟁자이자 꺾끄러운 상대인 유장춘 대신 만만한 학교 후배를 천거했다. 유장춘의 올림픽대회 참가의 꿈은 그렇게 좌절되고 말았다. 그는 광복 후인 1945년 12월 27일 서울운동장에서 거행된 자유해방경축 종합경기대회에서 5000m와 마라톤에서 모두 우승해 그 실력을 다시 한 번 과시했다.

영웅은 때를 만나야 출현한다고 했던가. 우리 육상경기 역사에는 때를 만나지 못해 올림픽대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 불운의 선수가 있다. 그가 바로 '동양 최고의 다리'를 가졌다는 찬사를 받은 전설의 점퍼, 김원권이다.⁰¹¹

그는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세단뛰기 세계 랭킹 1위였다. 1941년에 작성한 15m 86은 그해 세계기록이었다. 특히 이 기록은 1984년 한국체육대학 소속 박영준이 3cm를 늘리기 전까지 무려 43년간 한국기록이었다.

그만큼 김원권은 무산된 1940년 제12회 도쿄 올림픽대회에서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다. 그는 1939년 8월 보성전문 2학년 재학 중 오늘날 유니버시아드 대회 전신에 해당하는 세계대학생육상선수권대회에 일본 대표로 참가했다. 김원권은 그해 5월에 열린 도쿄 파견 선수권대회 세단뛰기에서 단연 돋보이는 랭

⁰¹¹ '운동계 인물론', 신세기, 1939년 9월호 p79; <월간 시민체육>, 조동표 5·6월호; 스포츠동아 2008년 6월 2일 등 참조.



사진: 민중서관 체육회대사진

- ◀ 1939년 보성전문 시절 유럽 원정경기를 갔다가 귀국한 김원권 선수. 동아일보 1939년 10월 19일자 게재 사진.
- ▲ 광복 후 고려대 교수를 역임하고 주일 대표부에서 근무했던 김원권.

킹 1위로 뽑혔다.

2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한 세계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막일은 8월 24일, 개최지는 오스트리아 수도 빈이었다. 김원권을 필두로 한 선수단은 이보다 70여 일 앞선 6월 10일 배편으로 일본을 떠나 긴 여정 끝에 7월 16일 이탈리아 나폴리에 상륙했다. 선수단은 이어 로마를 거쳐 독일에 들어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지역 대회에 참가했다. 본 대회에 앞선 컨디션 점검 차원이었다.

김원권은 이 대회 세단뛰기에서 15m 34를 뛰어 우승했다. 이 무렵 <신세기> 잡지 1939년 9월호에서 그를 두고 ‘그야말로 혜성 같은 천재의 출현’이라며 다가올 올림픽 우승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렸다.

그야말로 彗星(혜성)같은 天才(천재)의 出現(출현)이며 驚異(경이)의 的(적)이다……그의 품과 그 푸레이는 日常無理(일상무리)되고 洗鍊(세련)된 自信(자신)을 갖게 한다. 그는 지금 獨逸(독일)에 遠征(원정)하여 諸強豪(제강호)들을 睥睨(비아)하며 世界的記錄(세계기록)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意氣(의기)를 갖고 있을 것이다. 오는 올림픽대회에 있어서 우리의 期待(기대)는 三段跳(삼단도)에 있어서만은 어그러

짐이 없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 뒤 선수단은 독일, 핀란드 등을 돈 다음 오스트리아에 입국해 대회에 참가했다. 김원권은 대회 첫날 세단뛰기에서 별 무리없이 15m 37을 뛰어 1위에 올랐다.

전쟁으로 무산된 도쿄 올림픽대회

그런데 이튿날인 8월 25일 밤, 일대 사건이 터졌다. 히틀러의 독일군이 폴란드에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다. 오스트리아 주재 일본대사관은 선수단에게 서둘러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선수단은 8월 26일 먼저 떠나 버린 귀국선을 추적하는 우여곡절 끝에 미국을 경유해 10월 18일 일본에 도착했다.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김원권은 연습을 거듭했다. 올림픽대회가 열릴 것이란 실낱 같은 희망을 안고 있었으나 올림픽대회는 끝내 열리지 않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938년 7월 19일 나홀 전 일본이 반납한 제12회 올림픽대회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도록 중용해 핀란드는 이를 수락했다.

그러나 얼마 뒤 독일의 기갑부대가 폴란드를 전격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면서 결국 제12회 올림픽대회는 실현되지 못했다. 1940년 제12회 대회가 유산된 뒤 IOC는 1944년 제13회 올림픽대회를 런던에서 열기로 결정했지만 이 역시 세계대전의 와중에 중지되고 말았다.⁰¹²

⁰¹² 김광희, 2001, p259.

앞서 김원권은 1937년 10월 조선신궁대회에서 평안남도 대표로 참가해 15m 23을 뛰어 세단뛰기 조선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다 1938년 보성전문에 진학해 그해 세계신기록인 15m 63을 뛰었다. 같은 해 8월 21일 만주에서 열린 조선-만주 대항 대회에서 세운 기록이었다. 당시 김원권을 지켜 본 일본의 오다 미키오는 “동양 제1의 다리를 가진 점퍼”라고 추켜세웠다. 그는 1928년 올림픽을 패한 뒤 와세다 대학을 졸업해 일본 아사히신문 체육기자로 근무하면서 육상경기 지도자로 후진 발굴에도 능력을 발휘하던 인물이었다. 보성전문에서 일본 게이오 대학으로 옮긴 김원권은 연습을 거듭해 1941년 10월 일본종합선수권대회에서 15m 86이라는 대기록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당시 세단뛰기 세계 신기록은 16m였다. 김원권의 기록은 역대 2위. 또한 자신의 생애 신기록이었다.

멀리뛰기에서 한국 최초로 7m대 진입

김원권은 멀리뛰기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뽐냈다. 그는 1938년 9월 일본선수권대회에서 7m 47을 뛰어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7m대에 진입했다. 김원권은 2년 뒤인 1940년 6월 도쿄에서 열린 관동학생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자신의 기록을 7m 66으로 늘렸다. 이 기록은 1978년 5월 중별선수권대회에서 국제상사의 이평송이 7m 71을 기록할 때까지 38년 동안이나 깨지지 않았으니 김원권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는지 알 수 있다.⁰¹³

과거 일본은 세단뛰기에 강했다. 일본이 최초로 금메달을 딴 올림픽대회는 192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9회 대회. 일본의 오다 미키오가 세

⁰¹³ 고두현, 19980, p116.

단뛰기에서 15m 21로 우승했다. 뒤이은 1932년 LA 올림픽대회에서는 15m 72로 우승한 데 이어 1936년 베를린 올림픽대회에서도 당시 세계신기록인 16m를 뛰어 금메달을 손에 넣었다. 이처럼 세 대회를 연이어 우승하자 일본은 세단뛰기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올림픽대회를 유치한 일본 육상경기계는 고민에 빠졌다. 올림픽 3연속 우승 종목인 세단뛰기에서 마땅한 신예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조선 청년 김원권이 등장한 것이다. 그는 황해도 안악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해주고보에 진학했는데 그곳에서 유능한 체육교사를 만난 것이 행운이었다.

해주고보의 일본인 체육교사 이시카와라는 학생들을 발굴해 우수한 선수로 키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는 김원권의 2년 선배인 장신의 이장완이 달리기에 소질이 있다고 보고 조선 제1의 110m 및 400m 허들 레이스 선수로 키워 냈다. 이어 김원권, 최우영 등 뛰어난 재목들을 배출했다. 최우영은 당시 중등 높이뛰기 1인자였다.

김원권이 중앙무대에 등장한 것은 해주고보 4학년 때인 1935년. 그는 그해 7월 제2회 전조선 중등학교 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해 멀리뛰기에서 3위를 했고, 세단뛰기에 13m 23으로 2위 입상했다. 일취월장日就月將한 김원권의 최종 목표는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0년과 1944년 연속으로 올림픽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바람에 그는 1948년 제14회 런던 올림픽대회에 처음으로 태극 마크를 달고 세단뛰기와 멀리뛰기 종목에 참가했으나 성적은 부진했다. 런던 올림픽대회에서 그의 세단뛰기 기록은 14m 60으로 자신의 최고기록 15m 86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전설의 점퍼 김원권의 전성시대는 8·15 광복 이전이었다. 그러나 운이 따르지 않아 제 능력을 펼칠 국제무대에 서지 못했다. 올림픽대회가 예정대로 열렸다면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